

대학생이 지각하는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이숙정*,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e-mail: leesjeong@sookmyung.ac.kr

The 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Sook-Jeong Lee*, Hye-young Kim*

*Dept.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정과 평등을 주요 가치로 인식하는 청년 세대가 사회경제적 성취에서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실제 목표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끈기와 도전의식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 및 개인특성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 미완성의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최종 238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기술통계,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전공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세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회불평등인식은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그릿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 담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진로설정 과정에서 비교적 장기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진로준비행동을 추진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유형화,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 서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또는 직무)의 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진로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이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일자리 없는 성장이 나타나면서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경력있는 신입, 자격이나 면허의 과도한 스펙 요구 등 취업장벽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확장된다. 즉 취업의 기회가 공

정하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는 기회불평등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특징으로 불거리고 있어서[1],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민감하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기회의 평등이 문제가 된다. 취업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어렵게 한다[2].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획득과 소득결정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3], 청년기에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에 따라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1], 특정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회구조는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공정과 평등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

은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산가치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상실되어 간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은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과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음을 갖는가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릿(Grit)은 2007년 미국의 Duckworth와 동료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4].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능력”으로 정의되며[5],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역경이나 진전이 없는 정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흥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릿이 장기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는 열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행동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로 예측되는 성실성, 자기통제, 목표지향성 등의 개념과는 서로 다른 요인으로 판별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6], 그릿은 진로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 영역을 포괄하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각 발달단계의 과업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7].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을 기존에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활동에만 초점을 둔다든지, 진로준비와 관련된 인지 및 정서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자기이해, 직업능력향상, 직업세계탐색을 모두 고려한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들이 전제하는 진로준비행동은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자기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자기이해행동으로,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직업능력향상행동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및 탐색활동을 직업세계탐색행동에 통합시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8].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고 대학생들은 예비사회인으로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7], 그에 따른 불안감과 중압감도 매우 큰 시기이다. 따라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개인적 차원에서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성별, 학별, 가족배경 등의 사회구조가 불평등하고

공정한 기회 접근을 제한한다면 적극적인 진로준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만일 객관적인 불평등의 상황이 존재한다면, 주관적으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갖는지는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배경을 토대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45명이었는데,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3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범위는 18세-24세이며 평균 21.07, 표준편차 1.52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성별		
집단구분		여학생	남학생	합계
학년	1	53(41.4)	38(34.5)	91(38.2)
	2	42(32.8)	41(37.3)	83(34.9)
	3	33(25.8)	31(28.2)	64(26.9)
	합계	128(100.0)	110(100.0)	238(100.0)
전공	인문사회	24(18.8)	27(24.5)	51(21.4)
	자연과학	51(39.8)	36(32.7)	87(36.6)
	공학	42(32.8)	37(33.6)	79(33.2)
	예체능	11(8.6)	10(9.1)	21(4.2)
	합계	128(100.0)	110(100.0)	23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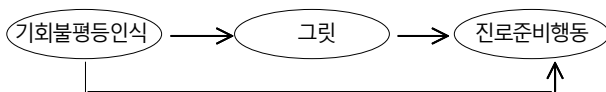
2.2 측정도구

기회불평등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병훈(2017)이 사용한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태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9].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평등, 기회보장 등의 내용으로 기회불평등인식의 문항 중 불평등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는 0.6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임효진(2017)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4]. 이 척도는 흥미유지 4개 문항과 노력지속 4개 문항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0.79이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윤경과 김성희(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8]. 본 척도는 자기이해행동(10문항), 직업세계 탐색행동(6문항), 직업능력 향상행동(9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0.88이다.

2.3 연구모형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릿을 매개로 간접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계량적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 검증을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마지막으로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집단별 차이 검증

3.1.1 성별 차이 분석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은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은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2]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구분	성별	N	M	SD	t	p
기회불평등인식	여	128	2.52	.49	-.42	.67
	남	110	2.54	.40		
그릿	여	128	2.93	.57	-.81	.42
	남	110	2.99	.67		
진로준비행동	여	128	3.52	.53	.18	.86
	남	110	3.50	.45		

3.1.2 학년별 차이 분석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 집단별 차이 분석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변인 모두 3학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각 요인별로 세 개의 집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릿 변인의 2학년과 3학년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 학년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학년별	N	M	SD	F	p
기회불평등인식	1	91	2.31	.42	24.51	<.001
	2	83	2.57	.44		
	3	64	2.78	.36		
	합계	238	2.53	.45		
그릿	1	91	2.75	.58	10.21	<.001
	2	83	3.01	.61		
	3	64	3.18	.60		
	합계	238	2.96	.62		
진로준비행동	1	91	3.25	.38	33.54	<.001
	2	83	3.55	.47		
	3	64	3.83	.47		
	합계	238	3.51	.49		

$p<.001$

3.2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회불평등인식,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의 상관은 .465,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은 .577,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은 .36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다음으로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4] 기회불평등인식의 그릿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p
기회불평등 인식	(상주)	1.34	.20	6.54	<.001
	그릿	.64	.80	8.06	<.001
ANOVA					
	SS	df	MS	F	p
회귀	19.62	1	19.62	65.01	<.001
잔차	71.22	236	.30		
전체	90.84	237			
R=.47, R ² =.22, SE=.55, p<.001, Durbin-Watson=2.02					

[표 5] 기회불평등인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p
기회불평등 인식	(상수)	1.90	.15	12.63	<.001
	진로준비행동	.64	.06	10.84	<.001
ANOVA					
	SS	df	MS	F	p
회귀	19.31	1	19.31	117.55	<.001
잔차	38.76	236	3.16		
전체	58.06	237			
R=.58, R ² =.33, SE=.41, p<.001, Durbin-Watson=1.7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6>에 제시한 1모형과 2모형을 비교해 보면, 그릿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1모형에서 기회불평등인식의 계수 0.64가 2모형의 0.57로 감소했다. 따라서 매개변인인 그릿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그릿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SE	beta	t	p
1	(상수)	1.90	.15		12.63	<.001
	기회불평등인식	.64	.06	.58	10.84	<.001
2	(상수)	1.77	.16		10.90	<.001
	기회불평등인식	.57	.07	.52	8.72	<.001
	그릿	.10	.05	.12	2.03	<.044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R=.59, R ² =.34, SE=.40, p<.001, F=61.60, Durbin-Watson=1.74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와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전공별 차이는 없었고 학년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과 정의의 중시하는 현재 20대들에게 취업시장으로의 진입에서 기회가 평등하거나 채용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진로준비와 취업의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내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을 3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릿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준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회불평등인식이 낮을수록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릿은 인식과 태도를 넘어 실제 목표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행동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10],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하는 그릿이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을 매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릿이 직업 및 진로발달을 포함해 수행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마련과 진로지도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pp. 27-52, 11월, 2016년.
- [2] 김은선, 이희수,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제 8권 1호, pp. 115-136, 3월, 2018년.
- [3] 남춘호,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제4권 2호, pp. 5-43, 6월, 2003년.
- [4] 임효진, “그릿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8권 2호 pp. 169-192, 6월, 2017년.
- [5] A. Duckworth, C. Peterson, M. Matthews, D.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Vo.92, No.6, pp.1087-1101, June. 2007.
- [6]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학업적응에서 끈기(Grit)와 목표의식, 성실성, 탄력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제18권 1호, pp. 1-18, 2017년.
- [7] 조성진, “시간관리교육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시간관리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제 8권 6호, pp. 755-781, 12월, 2014년.
- [8] 최윤경, 김성희,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제13권 5호, pp. 2085-2097, 10월, 2012년.
- [9] 이병훈,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4권 2호, pp. 157-179, 6월, 2017년.
- [10]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고등학생의 그릿(Grit)과 객관적 추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간의 관계규명”, 청소년학연구, 제22권 10호, 10월, pp.367-385, 2015년.